

사부대중에 올리는 꽃 공양

태종사, 7월 22~24일 '제1회 수국축제' 열어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태종대에 자리 잡은 태종사(주지 진용)가 수국에 파묻혔다. 고봉으로 퍼 담은 쌀밥처럼 새하얀 수국의 봉오리들이 경내를 가득 채운 태종사는 '혼자보기 아깝다'는 불자들이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제1회 수국축제로 꽃피울 계획이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태종사의 '제1회 태종대 수국축제'는 30여 년 동안 각국의 수국을 옮겨 심고 가꾸어온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과 태종사대중이 지역민들과 부산의 불자들에게 올리는 꽃 공양이자 공덕 회향인 셈이다. 축제 동안 일본, 네덜란드,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옮겨 심은 40여종의 수국들이 도량을 장엄하게 된다.

'꽃들을 위한 향연'이라는 부제를 단 태종대 수국축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임에도 이렇다할 축제조차 없었던 태종대에서 처음 열리는 축제여서 '태종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태종대 수국축제'라 명명했다. 특히 수국축제를 준비하는 주체 역시 태종사 대중의 울타리를 넘어 영도지역에 살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 회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도용(동주대 박물관장 퇴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추진위원은 하루가 멀다 하

고 모임을 갖고 '꽃들을 위한 향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꽃"이 단순히 수국이 아니라 '사부대중'의 다른 이름"이라고 강조하는 준비위원장의 말에서 이번 축제의 공덕과 즐거움이 전체 대중들에게 팔고루 회향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각국서 옮겨 심은 40여종 1천여 오색燈과 함께 장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계획

행사도 다채롭다. 개화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꽃 빛이 바뀌는 수국을 감상하는 즐거움 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된다. 첫날인 22일 11시 축제를 알리는 김늘이를 시작으로 3일 동안 모듬타악연주, 대금독주, 판소리, 살풀이, 민요모음, 삼도 설장구 등의 공연과 함께 투호 던

지기 등 전통 문화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3일째인 24일에는 통일 염원과 만중생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탑돌이로 수국축제의 마지막 밤을 아름답게 수놓게 된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상설 무대를 설치 중이며 태종대 순환도로를 따라 1천개의 오색 등을 밝힌다.

제1회 수국축제는 태종대에서 열리는 최초의 축제라는 의미 외에도 자연생태학습장과 수목장 조성의 원력을 담고 있어 의미를 더한다. 수국축제를 계기로 태종사는 야생 약초를 위주로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한다. 야생 그대로의 자연을 간직한 태종사는 이미 황칠나무, 생강나무, 가시오가피, 병꽃나무 등 수많은 자생 약초가



2700여 평의 도량에 산재해 있는데다 축제를 위해 옮겨 심는 약초들도 많아 앞으로 우리 약초의 효능을 제대로 알리는 생태학습장으로 손색이 없다.

한편 수목장 운동도 축제와 더불어 시작된다. 매년 가을 가족나루 심기 운동을 펼칠 예정인 태종사는 결혼기념일 나무 심기, 나의 탄생목 심기 운동을 통해 나무를 가꾸고 죽은 후에는 수목장의 기능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축제 준비에 한창인 주지 진용 스님은 "화려한 축제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획으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축제의 본보기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051)405-2727 천미희 기자

'茶·禪' 치매 예방에 효과

정여 스님, 치매예방세미나서 생활선 특강



"마음 다스리는 일 같다"

치매예방 및 재활과 차선복지모델을 주제로 부산여자대학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부산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사진)이 선특강을 해 관심을 모았다.

6월 24일 부산여자대학 다문화관 전실에서 부산여자대학 사회복지계열, 한국전인케어복지협회, 대한치매예방재활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차와 선이 치매예방과 치료

에 미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부산여자대학은 한국다도협회장이었던 정여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던 것이 인연이 돼 차선(茶禪)을 통한 복지실현을 위한 연구를 이어왔던 터라 각 대학의 차관련 복지 모형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자리가 됐다.

그 중에서도 정여 스님의 특강은 차와 선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여 스님은 "맑고 고요함에서 차를 마시는 일이나 고요히 앉아서 좌선을 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조금의 차이도 없이 한결같다"며 선의 정의, 선의 유래, 선 수행의 근본목적 등을 비롯해서 좌선의 올바른 자세까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차문화복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여 스님은 차와 관련된 복지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차와 선이 추구하는 맑고 고요한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차를 통해 부처님이 설하신 복지와 자비의 사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스리랑카에 복지시설 건립 기금 전달



조계종 울산불교신도회(회장 황경환)는 6월 24일 통도사 백련암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스리랑카 노인 복지시설 '유디토리트라마야'의 건립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황경환 회장 취임 이후 6월 초 신도회 임원 25명 전원이 일본 성지 순례를 다녀왔고 울산불교방송국 개국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울산불교신도회는 이번 복지기금전달로 스리랑카와의 교류에도 물꼬를 텄다.

이날 전달식에서 황경환 회장(사진 오른쪽)은 "스리랑카가 없었다면 부처님의 온전한 말씀인 원전이 전해질 수 없었다"며 "10월경 2천만 원을 추가로 보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금을 전달받은 스리랑카 시라 스님은 "이 성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불자들이 스리랑카에 보내주는 마음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임원회의에서는 9월 개최 예정인 제10회 울산 불교합창제 계획안을 토의하고 합창제를 문화 축제로 기획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빠르면 9월 이전에 개국 허가를 득할 가능성이 높은 울산 울산불교방송국 개국을 축하하는 행사도 준비하기로 의결했다.

천미희 기자

부산·창원 5·31 선거 당선자 초청법회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의 당선 축하하고 시정과 도정발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부산과 창원에서 각각 열렸다.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6월 28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5·31 지방선거 당선자 초청 리셉션'을 개최했으며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원정)와 진해불교사단연합회(회장 윤성)는 6월 26일 창원 성주사에서 '민선4기 지방자치 출범 경남 도시정 발전 기원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28일 부산에서 열린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수석 부회장 영재 스님, 혜종 스님을 비롯 공병수 신도회장, 유진수 부산불교방

송 사장,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이 참석해 당선자들을 축하하며 바른 정치를 당부했다.

한편 창원 성주사에서 열린 행사는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근 마산시장을 비롯 마산, 창원, 진해의 당선자들이 참석했으며 원정 스님의 봉행사, 마장불교연합회 원로 철화 스님의 격려사, 도시정 발전기원 축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치인들을 초청한 스님들은 공통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늘 명심한다면 최고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맑고 깨끗한 정치로 민심을 보듬고 국민들이 근심없이 살 수 있도록 보살펴 나가는 정치를 펴라"고 당부했다.

천미희 기자

해군3함대 해운사 개원법회



6월 15일 부산 남구 용호동 신 작전기지로 이전한 해군3함대는 작전기지 내에 해운사(주지법사 정직환)법당을 준공하고 6월 22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당 개원이전 100여명의 불자 장병들은 생활관 옥상에 가법당을 만들어 놓고 법회를 봉행해왔다.

200여 평 부지에 대웅전을 비롯해 중무소, 수양관 2동의 요사채를 갖춘 해운사는 2003년 기공해 지난 4월 22일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해운사는 매주 일요일 오전10시와 목요일 오후 6시 정기법회를 열 예정이지만 불자들의 후원 없이는 운영

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군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단체나 모임의 도움이 절실하다.

조계종 군중특별교구장 일민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부처님의 성전을 모시는 공덕은 아주 큰 것이지만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전하는 것은 더 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늘 배우고 발원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679-4682

이은아 기자

혜종 스님 등 9명 경승 위촉

부산진경찰서는 6월 23일 부산진경찰서 교육관에서 감로사 혜종 스님, 삼광사 감응 스님 등 9명의 관내 스님에게 경승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승추대식을 가졌다.

감로사 주지 혜종 스님이 경승실장으로, 삼광사 교무 감응 스님,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금선사 유초 스님, 광명사 무아 스님, 원각사 태연 스님, 선봉사 도봉 스님, 황제사 성문 스님, 보광원 인환 스님이 경승으로 위촉됐다.

천미희 기자

호국불교효예중 법진스님 의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달마의 氣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닦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名家인터내셔널

고객상담전화 1588-3278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널
- 판매원 : (주)S.H상사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읍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목걸이줄은 발매)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